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10)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18-36개월) / 본당 2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37개월-PreK) / 할렐루야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스튜디오),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비전채플), 11:00AM(스튜디오)
- 한어중고등부(CIM) / 살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소망부실, 온라인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Pri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All 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면류관 벗어서(찬/새25장)
- 기도 Prayer.....All together 다같이
1부/김명수 장로 2부/김양환 장로 3부/김재훈 집사 4부/윤제니퍼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가르쳐서 지키게 하라(작곡 Mary McDonald)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Media 방송실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에스겔 16:1-8 All together 다같이
4부/마가복음 15:33-41
- 말씀 Message 1, 2, 3부..... Rev. Tae Heon Jo 조태현 목사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가정
4부.....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호도스 위에서 로고스를 만나다(45) 희롱은 끝났다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주만 바라볼찌라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거기에 있겠습니다

*축도 Benediction Rev. Tae Heon Jo 조태현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목회자 칼럼
Pastor's Column

영의 아버지, 기도의 어머니

Spiritual Father, Praying Mother



조태헌 목사 / Rev. Tae Heon Jo

지난주 어버이 주일(Mother's day)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작년에 아버지 장례를 치른 후 미국으로 오게 되었고, 1년이 지난 올해 어머니를 천국으로 보내 드렸기 때문입니다. 으레 어버이날이 되면 용돈 보내 드리고, 아이들을 앞세워 영상통화 한 번 하는 것으로 잘 치렀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아버지, 어머니가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고 여겨지니 괜히 슬펐습니다. 사실 단순히 슬프다고 하기보다는 허전하다? 심심하다? 뭔가 내 삶에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에 휘둘리기가 싫어서 애써 부모님에 대해 생각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를 가만히 두지 않더군요. 주일예배 설교에서 황 목사가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주실 때 눈물 한 번 흘리고, 예배 후 만나는 분들이 손을 잡아 주시면서 "어휴, 목사님 오늘 어머니 생각 많이 나시겠어요." 하셔서 울컥하고, 저녁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아내가 "여보, 어머님 보고 싶지 않아?"라고 해서 소화가 안 되게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듯, 이번 어버이주일을 통해서도 저에게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가 준비되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중 한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께서 해 주신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머니가 아들이 목사님이 되어서 참 자랑스러우셨을 텐데요. 또 설교할 때마다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겠어요? 이제 어머니가 천국에 가셨으니, 앞으로 목사님 설교하실 때마다 저희가 기도를 많이 해 드릴게요."

새삼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지금의 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육신의 부모님은 이 땅에서 함께 계시지 않지만 나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부모님들의 기도를 통해 힘을 얻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직접 말을 해주지 않으셔도 수많은 베델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저와 저희 가정, 제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늘 저에게 든든한 영적 부모님이 되어 주시는 담임목사님과 사모님, 베델이라는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만난 아버지와 어머니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면, 성령께서 저를 통해 베델의 모든 가족들에게 귀한 은혜를 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Last week's Mother's Day was particularly meaningful to me. I came to America right after my father's funeral last year. This year, one year later, my mother went to heaven. I used to think that it was good enough to just send money to them on Parent's Day(Mother's Day), and to video chat showing my children. But now that my parents are no longer on this earth, I feel sad. It isn't just sadness, but rather I feel empty? Dull? It is a strange feeling of missing something important in my life.

I tried everything I could to not think about my parents because I didn't want to get wrapped up in the complicated emotion. However, people around me would not leave me alone. I shed tears during Lord's Day sermon, when Rev. Hwang shared stories about parents. After worship, I cried when many people came up to me, holding my hands, said, "Ah, Pastor you must be thinking a lot about your mother." And then during dinner, I couldn't digest when my wife said, "Honey, don't you miss your mother?" As all things happen in my life by God's will and providence, I feel through this Parent's Day(Mother's Day), that God has prepared for me a new understanding and grace.

I remember something an Elder and his wife said to me. "Ah, Pastor, your mother must have been very proud of you for becoming a pastor. How much she must have prayed for her son(you) each time you preached? Now that your mother is in heaven, we will pray for you each time you preach."

I realize that it is through my mother's prayers that I am here. Even though my physical parents are not here, I am grateful that I was being strengthened by prayers of spiritual parents all around me. Although it is not said, I know well that many of Bethel's fathers and mothers are praying for me, my family, and the ministry.

I send my heart of appreciation to our Senior pastor and his wife, who have always been my strong spiritual parents, and to fathers and mothers I have met at this beautiful Bethel community. If you are praying for me as I stand on the pulpit today to deliver God's word, I know that Holy Spirit will proclaim through me of His precious grace to Bethel families.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조태헌 목사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가정 에스겔 16:1-8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가정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야 할까요?

적용하기



1. 가증한 일을 알아야 합니다.

- 1) 출생지(가나안): _____
- 2) 아버지(아모리): _____
- 3) 어머니(헷): _____

- 나와 우리 가정의 가증한 일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2. 불쌍히 여기고 체휼해야 합니다.

- 부모님과 배우자,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볼 수 있습니까?
-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축복합니다.(ex."살아줘서 고마워.")

3. 사랑하고 속해야 합니다.

- 크게 자라고 많이 이루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 같은 나를 사랑하니까?
- 나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께 속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적용을 찾아봅시다.

■ 적용찬양: 주만 바라볼찌라

베델 사역 - 양로병원

아름다운 하나님 사랑 나눔



팬데믹으로 멈춰졌던 양로병원 사역이 3년 만에 애너하임과 가든그로브에 있는 양로 병원에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양로병원은 거동이 불편 하셔서 집에서 생활하시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입니다. 올해 3월부터 이곳을 찾아가 어르신들께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고, 함께 모여 기쁘고 즐거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델교회는 한 달에 두 번, 주님 주신 달란트대로 찬양과 기도, 말씀, 복음 제시 등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드린 후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찬양할 때 손뼉을 치시며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 고맙다고 연신 말씀하시며 손잡아 주시는 모습에서 참 감사와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 달에는 어머니 날에 방문하여 우리의 어머니들께 감사와 위로의 뜻으로 꽃목걸이를 걸어 드리고 작은 선물도 전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예배 후에, 거동이 어려워 예배에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 방으로 직접 찾아가려 합니다. 믿지 않는 분들과는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기를 기다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할 예정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도하며, 하늘나라 가시기 전 마지막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다해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이것이 양로병원 사역팀의 중요한 사역 목적이기도 합니다.

또한 더욱 풍성한 예배를 위해 바이올린, 첼로

와 같은 악기 연주자들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재능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의: 이해원 집사 (714)788-3833

<양로병원 봉사자 간증>

이 봉사를 시작할 때부터 양로병원에서 많은 일들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특히, 봉사 초기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병실마다 돌아다니며 아이들이 연주하는 바이올린 소리를 듣고 병실 문으로 모여드는 휠체어 타신 한인 및 타인종분들과 함께 하나님 찬양할 때 기쁨이 넘치고 은혜로운 자리였습니다.

양로병원은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거하며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현장입니다. 평생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인생의 종착점까지 오신 분들께 복음을 제시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자리이며, 주님을 영접하신 어르신들께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으로 기도로 전달해 드리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예배의 현장입니다. 또한 소망부 친구들과 함께 어르신들을 섬기고, 어르신들의 사랑을 통해 소망부 친구들도 기뻐할 수 있는 감사사가 넘치는 자리입니다.

우리교회 소망부 친구들 2-3명 정도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양로병원을 방문하여 (도우미 학생들과 함께) 어르신들과 함께 휠체어도 밀어 드리고 찬양하며 함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곳 미국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홈리스, 소망부, 양로병원 계신 분들인데 그 중 소망부와 양로병원 어르신들은 혼자서 다른 곳에 갈 수도 없으며,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한시도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소망부 친구들이 양로병원 어르신들에게 다가가서 손 잡아주고 템버린을 치며, 함께 하나님 찬양을 하는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 사랑 나눔'입니다. 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찬양 끝나고 소망부 친구들을 손 잡아 주면서 "이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랜지시에 위치한 양로병원에서 계시던 김모 권사님과 친필로 나는 대화 내용 중 일부를 소개 드립니다. "이런 모습으로 뵈게 되어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화장실도 못 가요. 이런 나이가 되어나 자신이 한심 하기만 하는군요. 찾아오셨는데 아무런 대접도 못 하는 걸 이해하시고 용서하세요. 사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적은 없습니다." 마지막 내용이 항상 저의 가슴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심방

베델의 우산 아래서



온 저희 가정은 그동안 한 달에 한번 저희 집을
오픈할 수 있었습니다.

대심방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곰곰
이 고민하다 이번에도 저희 집을 오픈하여 목
장 목사님 인도하에 셀 모임을 가졌습니다. 또
각각 가정별로 목사님과 권사님께 가정의 어려
움과 기도 제목을 나누
고 기도 해 주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있는 가
정을 위해 셀식구들끼리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돌
보며 서로 한마음으로
도와 모두가 깊은 대화
의 시간을 가질 수 있
었습니다. 저희 가정
또한 목사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도
전과 위로를 받았습
니다. 목사님의 따

뜻하고 섬세한 인도로 다시 한번 셀이 더 돈독
해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계기가 되어서 감
사 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온라인 방송의 편익에 익숙해진 일
부 셀식구들도 현장 예배로 나오게 되었고, 온
라인 방송과는 다른 은혜를 경험하면서 감사함
을 셀모임 통해 나누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목
사님들에 대해 어렵고 멀게 느껴졌던 부분이 이
번 심방을 계기로 개인적인 부분들도 알게 되어
친밀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셀식구들과 아이
들까지 교적에 사진이 없으면 개인 카톡에서 사
진을 붙여서 모든 셀식구의 정보와 사정들을 알
고 계셨고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기
도해 주시겠다는 목사님과 권사님의 사랑과 관
심에 다시 한번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교회가
가족처럼 가까이 있고, 내가 혼자가 아님을 베
델의 우산, 주의 우산 아래 있음을 다시 한번 느
끼는 시간이었습니다.

허호호/이혜림 성도(캠퍼스 비전셀/소망목장)

캠퍼스 비전이라는 셀 이름
처럼 셀식구들 대부분이 캠퍼스에서 학위 과정을 밟고
있거나 연수로 오신 분들로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계셔
서 대심방이라는 귀한 기
회에도 선뜻 집을 오픈하
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곱 가
정으로 구성된 저희 셀은 아이들
까지 모두 모이면 25명이나 되어
교회에서 배정받은 장소가 작을
때도 있습니다. 다행히 몇 년 전
남편이 학위를 마쳐 기숙사를 나



수요예배

거룩한 성전으로

이번 수요예배는 4주 동안 "믿음과 의심 사이"라
는 주제로 이충경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저는 이 주제에 깊이 공감하며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갈등하고 고민했던 많은 순
간에 대해 갑급함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
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
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기적을 체
험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
고 그 사랑을 확신했지만, 또 다른 어려움과 문
제들이 오면 기도하면서도 다시 걱정하게 되고
마음을 졸이며 응답이 더딜 땐 마치 '주님께서
날 버리신 건 아닌가? 회개하며 기도했어도 용
서받지 못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응답이 없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에 더 낙심하게 되고 하
나님을 의심하며 믿음이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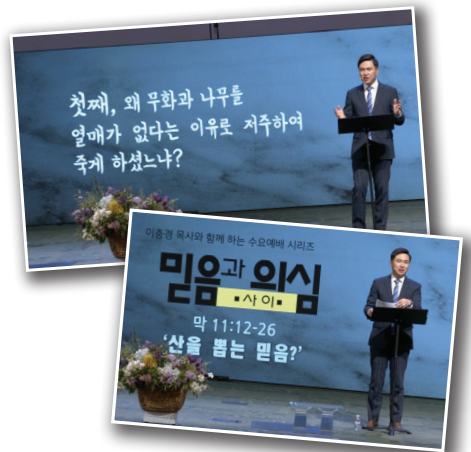
그런데 목사님께서 4주간 선포하신 말씀은 내
게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가장 먼저 믿음의 본
질과 그것을 의심하게 하는 불확실한 내 마음을
점검하는 소중한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주에 선포된 말씀은 그동안 말씀을 묵상
하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본질의 비밀'을 열어주
시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앞에 놓여진 산이 옮겨지는,
눈에 보이는 엄청난게 큰 기적만을 바라본건 아
닌지, 믿음의 기도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기적의 역사에만 초점을 두었
던건 아닌지, 정작 내 마음은 주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려고는 했는지, 깊은 회개
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게 있는 의심의 산을 뽑아내고 용서 받으며 용
서하며 일상생활에서 예수님 닮아 가는 삶으로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겠다는 다짐을 하며 날
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삶이 성령충만한 은
혜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길 주님께 간절히 기도
합니다.

김지숙 집사



교육부

날마다 쑥쑥 자라나는 믿음



베델 교육부의 각 부서에서는 매 주 복음이 선포되고 말씀이 씨가 되어 뿌러지며 성령님의 놀라운 일하심으로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이 쑥쑥 자라나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으로 섬기고 양육하며 받은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특별하게 경험할 수 있는 사역이 바로 교사로서의 섬김입니다. 매 주일 유년부에서 만나는 소중한 어린이들의 얼굴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또 분반 공부 시간은 어린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으로 인해 교사인 제가 에너지와 기쁨을 더욱더 얻는 시간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힘으로 기쁘게 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유년부 어린이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보냅니다. 큰 기쁨을 주는 우리 어린이들을 아주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조수진 집사(유년부 교사)

저는 베델 중등부 온라인 QTin그룹 모임(zoom 주소: 882 0746 0935, 월-목 저녁 8-9시)에 2022년 8월부터 참여했습니다. 작년 멕시코 선교를 갔을 때 매일 아침 첫 30분을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으로 가졌었는데 이 모임을 통해 그 습관을 지금까지 이어 올 수 있었습니다. 작게 시작한 모임이 이제는 많은 친구와 함께 제 삶에 더해지는 축복도 커짐을 느낍니다. 학교생활과 학교 외 활동에 바빠서 이 모임을 병행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긴 하지만 큐티 모임에 참여함으로써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친구들에게는 말씀이 어떻게 들렸는지 나누게 되는 긍정적인 영향이 많습니다. 또한 제가 저의 감정과 생각들을 꾸밈없이 나누고 다른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는 편안한 공간입니다. 꾸준히 모임

에 참여한 시간을 돌아보니 하나님과 매일 더 관계가 깊어지고 가까이 동행하는 삶이 되었다고 느낍니다. 주일 뿐 아니라 주중에도 다른 중등부 학생들과 펠로십을 나눌 수 있고 제 삶을 더 나은 길로 이끄시는 우리 큐티 모임이 있음에 감사할 드립니다.

Cailyn Lee(영어 중등부 8학년)

저는 미국에 온 지 1년이 되었고 CIM 한어 중고등부에서 반주로 섬기며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사람들의 커다란 함성과 예수님을 죽이라는 압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또한 반란이 일어나면 자신의 커리어에 흠집이 생길 수 있어서,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우리도 학교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때 이런 딜레마를 경험할 때가 있지요. 당연히 빌라도와 같은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지는 않지만, 일상 속에서 이런 상황에 놓일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친구들의 생각이나 또는 그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서 그냥 침묵할 것인가? 가끔 학교 친구들이 시험이 다가오면 누구나 공부의 압박을 받죠. 거기다가 시간도 부족하면 먼저 시험 본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

은 유혹이 생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CIM에서 주일에 반주 하느라 금요일에도 연습하러 가기 때문에 특히 시험 기간에는 부담이 되어서 반주를 안 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저 자신에게 상기시키곤 합니다. 그러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더 구하는 자에게 나머지 삶의 문제들 저의 경우에는 시험 결과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게 되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가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삶 속에서 딜레마를 경험할 때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기로 결단합니다.

임래내(한어 중고등부 10학년)



QTin 간증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

민해정 권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니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시편 18:1-3)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나가기 전 제일 먼저 하는 일이 QT 말씀부터 듣습니다. 예전에 목사님 설교 중에 아침에 QT로 시작하는 하루는 우리의 삶을 주안에서 살게 한다는 말씀에 감명 받아 그 이후로는 매일 아침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방법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며 구원의 뿔이 되어 주시는 경험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열 수 있는 것이 늘 감사합니다.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 기획/행정/기도: 이충경 목사
- 사랑/BCA/QTM: 정승락 목사
- 소망/전도폭발/이웃사랑: 주성필 목사
- 믿음/예배/선교: 김홍식 목사
- 화평/베델워십/셀: 박경철 목사
- 은혜/교회학교: 박성권 목사
- 충성/훈련/평생교육: 조태현 목사
- 새가족/경조/예향: 한순고 전도사
- BGC: Dan Nam 목사
-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 일본어 예배/헬시바: 손용주 목사
- 예삼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 예삼채플: 공병주 전도사
- 예삼채플: 강수연 전도사
- 예삼채플: 조성현 전도사
- 영어고등부: 여옥제(John) 목사
-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 한어중등부: 이형석 전도사
-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 K-1: 정가영(April) 전도사
- 영아부: 이진영 전도사
-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 통역/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 지휘자: 김형직 목사
- 솔리스트: 최정원
- 뮤직디렉터: 정봉화
- 반주자: 한현미, 이정은

◎사역 간사 및 인턴◎

-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 유아부/한어권: 정티나 인턴 전도사
- 영어중등부: 이사라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 사무장: 마현진
-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 사무실: 인현미, 김은영
- 재정실: 이수민
-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 음향: 강창위
- 방송실: 최중형, 김지현
- 디자인: 박선경
- 웹: 김정아
- 수양관: 오춘란

지역광고

BAM 전문인 선교

'BAM 전문인 선교'란 비즈니스의 전문성을 살려 사역하는 선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 선교가 의료인의 전문성을 살려 병원이 라는 매개체를 통해 병원과 연관된 미전도자들(환자, 보호자, 직원 등)을 대상으로 펼치는 선교라면, BAM 전문인 선교는 기업 경영의 전문성을 살려 비즈니스라는 매개체를 통해 이와 연관된 직원, 고객, supplier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를 뜻합니다.

이번 6월 터키에서 하는 BAM 사역은 컵밥 시식회인데 1호점 개점에 앞서 현지인들의 입맛을 테스트하기 위한 이벤트입니다. 한국의 맛을 살리면서도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맛을 찾는 것이 목적인데 이와 같은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비즈니스의 성공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전 준비를 오래전부터 해왔는데 컵밥 비즈니스의 기획과 준비를 해온 핵심 주역들은 모두 베델교회 BAM 훈련을 수료한 전문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Fast Food Restaurant 전문인, 마케팅 전문인, 금융 전문인, Accounting 전문인들로 구성된 팀이 매주 온라인으로 모여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제 컵밥 시식회를 앞두고 현장에서 헌신하실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터키 현지에서 새로운 선교개념인 'BAM 전문인 선교'의 첫 삽을 뜨는 뜻 있는 사역에 함께 참여해 주세요.

- ▶ 일정: 6월 5일(월)-6월 12일(월) 미국 출발/도착 기준
- ▶ 홈페이지: ktownkoreanfood.com
- ▶ 문의: 허용진 장로 (714)423-6996, 박지학 집사 (217)390-4107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5,6월)	5/28:	①부-여홍평	②부-김백열	③부-김종현	④부-박제인
	6/4:	①부-김성균	②부-김정윤	③부-김인권	④부-박찬미
	6/11:	①부-김주홍	②부-김정태	③부-김진성	④부-이서원

헵시바 토요일 새벽 대표기도(5,6월)	5/27: 강영재	6/3: 김동균	6/10: 김양래	6/17: 김유호
강단꽃(5,6월)	5/21: 이승대, 임명신	5/28: 송미선, 왕동원, 양성주	6/4: 이상희, 지효정, 황은아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연규호(내과), 간호사-홍정이 다음주 | 의사-박현진(한외과), 간호사-오선희

선교후원

-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바(옥소리),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Reza, 박기쁨
- BAM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 김승봉(유영선)
- 창의적접근지역 | 이희숙, 길예평(길진명), 희바(배안), 이상훈
-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MA, GP미주본부,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베델 수요일예배

수요일 오전 10시에 드려지는 예배에서는 박성권 목사의 "Warrior or Worrier(용사인가? 겁쟁이인가?)" 시리즈 두번째 말씀으로 드려집니다. 모두 현장예배에 참여하시어 깊은 기도와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저녁 7시에는 Youtube로 실황이 방송됩니다.

◆ 라구나우즈 연합 모임

2023년 상반기 마지막 라구나우즈 정기 연합 모임이 있습니다. 라구나우즈 지역의 베델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교제하는 모임이오니 참여하셔서 주 안에 하나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시: 5월 23일(화) 오후 12시-2시 30분

장소: Club House 7

대상: 라구나우즈 지역 베델교회 모든 성도

◆ 단기선교팀모집

① BAM 전문인 선교: 터키 교회의 자립을 돕기 위한 이스탄불에서의 컵밥 비즈니스 사역(7면 참고)

상호 - Popup Korean Restaurant(메뉴: 컵밥-불고기/떡갈비/닭고기)

일정/문의: 5월 29일(월)-6월 5일(월), 박지학 집사 (217)390-4107

② 우간다: 건물 페인팅, 장애우 섬김, 의료, 사진, 결혼식 섬김 등의 사역
일정/문의: 6월 12일(월)-21일(수), 김종곤 집사 (714)450-0015

◆ 교회학교 QTin 영문판

어린이들을 위한 Monthly 영문 QTin 교재가 실내 카페에서 판매중입니다.

◆ 교회학교 VBS 교사 모집

원활한 VBS 진행을 위하여 중고등부 TA를 포함하여 어른 교사까지 많은 교사가 필요합니다.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신 모든 분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으니 많은 분들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VBS 기간: [영유아부] 6월 14일(수)-16(금), [K-5] 6월 21일(수)-24일(토)

문의 및 교사 지원 링크 받기: 각 부서 전도사

◆ 교육부 교사 기도회

"Always Be There: Always Keep on Praying" 아멘져스(AMENgers)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모든 교육부 교사와 TA는 참석하셔서 우리 자녀들과 다가오는 'VBS: Keepers of the Kingdom'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 함께 기도합니다.

일시: 5월 28일(주일) 오후 12시 45분

장소: 체육관

◆ CIM 졸업뱅크

CIM 졸업생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 졸업을 축하하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8학년과 12학년 졸업생들과 학부모님들은 부서에서 제공한 구급품을 통하여 신청하시고,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시: 5월 26일(금) 오후 6시 30분

장소: 유년부실

문의: 장세인 집사 (949)910-1670

◆ 베델한국학교 가을학기 등록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는 베델한국학교 가을 학기 등록 중에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등록해 주세요.

등록 기간: 5월 6일(토)-6월 4일(주일)

등록처: 한국학교 홈페이지 school.bkc.org

학기 일정: 8월 26일-12월 16일(16주 과정, 11월 25일 휴강) 오전 9시-오후 12시 30분

학비: \$320(교재 및 간식 제공)

문의: 윤미나 집사 (310)913-3360, koreanschool@bkc.org

◆ 몽골 선교를 위한 펀드레이징

예람에서 몽골 선교를 위한 펀드레이징을 합니다. 1-3부 예배 후에 코트야드에서 스콘(scone)을 판매하오니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Lost & Found 운영 안내

교회 내에서 물건을 분실하신 분들은 주일예배 후 본당 앞 Lost & Found 부스로 오셔서 분실물을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분실물 사진 확인 방법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Lost & Found 아이콘 클릭 또는 QR 코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문의: 강덕규 집사 (949)294-9680



◆ 어버이주일 선물 미수령

어버이주일, 80세 이상 되시는 부모님들께 드리는 선물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축하해 주세요

김영일/원미정 집사 가정에 딸 김이서(Ella)가 5월 8일 태어났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

故 우복희 성도님(우현수 집사의 부친)께서 5월 13일(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베델성도의 배려와 양보가 베델주차장 염려를 없앱니다! ▶ 비전파킹랏 주소: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새가족 외 모든 베델성도님은 매 주일 비전파킹랏에 주차해 주시기를 바라며, 주차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기를 알려드립니다.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박은혜 권사 ■ 사진: 박상곤 장로, 최호경 집사
■ 기자: 김규현 집사, 김성복 집사, 김혜영 권사, 남우영 집사, 배은섭 집사, 윤은정 집사, 이지애 집사, 정민주 집사, 최 신 권사, 황리나 집사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A Family Where the Word of the Lord has Come

Ezekiel 16:1-8

What are some things that should happen in a family where the Word of the Lord has come?

Apply to Life



1. You must understand the detestable practices.

1) Place of birth(Canaan): _____

2) Father(Amorite): _____

3) Mother(Hittite): _____

- What do you think are you and your family's detestable practices?

2. You must have pity and compassion.

- Can you look at your parents, spouse, and children through the eyes of God the Father?

- Let's bless the person's existence itself.(ex. "Thank you for being alive.")

3. You must love and belong.

- You thought you grew up and developed, but do you love yourself even though you are still naked and bare?

- Look for specific applications for you and your family to belong to God the Father.